

[미디어+] “희망과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cpbc Tv ‘해인글방’ 속 꽃 말마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 지친 자신을 성찰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시인이자 수도자로써 반세기 넘게 봉헌의 삶을 살고 계신 이해인(클라우디아,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님의 시와 말씀으로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가톨릭평화방송TV 프로그램 <해인글방>에서 수녀님과 젊은 신앙인 홍찬미(글로리아, 싱어송라이터) 씨가 수녀님의 시를 읽으며 나눈 대화를 옮깁니다.

○ 발견

‘꽃의 죽음으로 키워낸/ 한 알의 사과를/ 고마운 마음도 없이/
무심히 먹어버린/ 조그만 슬픔’

이해인 수녀 시 <작은 노래> 중에서

찬미: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지?’라는 고민이 있어요.

해인수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길 바라요. 수련기 수녀들의 수련장 수녀처럼, 자기 자신의 수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뿐 아니라 무력함에서도 삶을 배우고, 하느님 안에서 받은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요. 희망과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발견하는 기쁨이 희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과가 나에게 오기까지 꽃의 죽음이 있었고, 농부의 땀이 있었구나...’라고 말이에요(<해인글방> 2화 중).

○ 새로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다짐을 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사랑하고’

이해인 수녀 시 <행복도 새로워> 중에서

해인수녀: ‘사는 것 자체도 고통인데 무슨 행복이고 희망이냐’고 항의한 분이 있어요. 그분께 제가 ‘많이 아파보시라, 숨쉬는 것도 얼마나 새로운 행복인지 알 거다’고 변명한 적이 있어요. 뭐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결심도...(<해인글방> 8화 중).

○ 그리고... 기도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아프면 아파서/ 당신을 부르는 동안/ 더 넓어진 하늘/ 더 넓어진 산/ 더 깊어진 마음’

이해인 수녀 시 <사랑의 길 위에서> 중에서

해인수녀: 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인생관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 시는 반세기에 걸친 수도 생활 55년의 결산, 사랑의 보고서이자 요약본이라 말하고 싶어요.

찬미: 뭔가를 시작하는 저와 같은 이들은 ‘사랑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수녀님의 마음을 읽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담백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인수녀: 저는 성경 못지않게 논어를 자주 읽어요. 논어에 ‘평상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상생활 안에서 많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평상심’. 그것이 사랑의 길을 잘 걷는 방법인 것 같아요(<해인글방> 11화 중).

서동경 안나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 ‘해인글방’은 부산 광안리 성 베네딕도 수녀원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작은 수녀가 시 한잔 기쁨 한 송이 피우며 여러분과 우정을 나누는 나눔 자리입니다.

언제라도 사랑으로 오세요.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cpbc 해인글방

매주 월 22:30, 화 16:30, 수 23:00,
금 10:30, 토 19:30, 일 23:30

cpbc 위성TV 184번
cpbc IPTV, OllehTV 231번
Btv 307번, U+TV 274번

